

2016 여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샘터지역아동센터



2016. 7

샘터지역아동센터 한*정

이화봉사단을 통해 교육봉사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었다. 과거에 했던 봉사과 달리 이번 봉사에서는 아이들과 해야 할 모든 프로그램을 스스로 다 짜야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막하고 힘들기도 했다. 그래서 팀원들과 많은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나갈 수 있었다.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하나 하나 모두 사는 것부터 활동을 진행하는 대본까지 짜면서 준비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했지만, 팀원들과 역할을 나누고 자주 만나서 하다보니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지는 않았다.

첫날 센터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만났을 때는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많이 고민되었다. 그래서 서로 소개를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사실 첫날 약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과 함께 하려니까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 어렵기도 했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나 규칙에 대해 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함께 지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정하자, 그 다음부터는 규칙도 잘 따르고, 우리의 말에도 집중해 주어서 남은 활동을 잘 진행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잘 다가오지 않던 아이들에게도 먼저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칭찬도 해주면서 다 같이 친해지려고 했다. 내가 먼저 다가가니까 아이들도 금방 나에게 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같이 놀자고 해주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나 관심있는 만화, 좋아하는 것 등에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아이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고,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활동들도 모두 잘 참여해주어서 고맷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재미있었다고 해주어서 너무 고맷고, 뿌듯했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들도 힘을 얻어서 활동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질까 많이 걱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아이들이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렇지 내가 먼저 다가가면 쉽게 친해지고 이야기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이들과 있을때는 특히 말과 행동에 주의해서 활동을 했다. 여름이어서 날이 더워 활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계획과 달리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그때마다 팀원들과 다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해결할 수 있었고, 팀장이었던 나를 많이 도와주어서 매우 고맷다. 처음에는 길다고 느껴졌던 5일이 아이들과 친해지고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짧게 느껴졌다. 떠나는 날 아이들이 계속 연락하고 싶다고 하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물어 볼때 마다 나도 헤어지는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웠다. 그래도 이번 봉사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아쉽고 부족했던 점도 많은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번 경험을 살려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봉사를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샘터지역아동센터 연*재

2016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라남도 해남에 위치한 샘터지역아동센터로 교육봉사를 갔다 왔다. 그동안 중, 고등학교 때까지 해왔던 봉사는 사실 학교에서 시켜서 하는 수동적 봉사활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대학생도 되었겠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봉사다운 봉사'를 해보고 싶었다.

마침 이화봉사단을 통한 국내교육봉사 프로그램은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난생처음의 4박 5일 동안의 교육봉사이고 전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가기 바로 전날까지도 많은 고민과 두려움, 기대가 공존했었다. 팀원들과의 관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아이들과의 관계, 나의 체력 등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했었다. 계속 '가지 말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말이다.

하지만 4박5일로 갔다 오고 난 이후로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고되더라도 값진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나에 대해 깨닫고 오는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해 깨달은 점 중의 가장 첫 번째로는 아이들에 대한 것이다. 어디를 가든 항상 막내였고 늦둥이였던 나로서는 아이들을 다뤄보고 같이 놀았던 경험이 드물다.

이런 내 자신이 과연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과 뛰어나게 잘 지내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또 그동안 초등학교 아이들은 다 말 안 듣는 개구쟁이일거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개구쟁이기는 하지만 장난과 함께 아이들만의 순수함과 진심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나이는 어려도 그 친구들만의 생각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들만의 생각이 있음을 인지하고 존중해주고 맞춰가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인 것임을 알았다.

두 번째로 스스로에 대해 깨달은 점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다. 4박 5일 동안의 여정 속에는 뿌듯함과 행복도 있었지만 어색한 환경에서의 새로운 활동인 만큼 힘듦과 우울함도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만 자라기만 했고 감정적으로도 예민한 나로서는 가족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견디기 힘들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최대한 '이 상황에 대한 감사'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승화하려고 노력한 끝에 한 층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 어색한 환경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하고 오니 앞으로는 이런 활동이 있을 때 한결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이외에도 해남에서의 4박 5일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또한 앞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봉사활동의 시작점을 터트려 준 경험이기도 하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의 봉사활동을 앞으로 두고두고 추억할 것 같다.

샘터지역아동센터 유*수

처음 봉사준비를 시작할 때에는 좀 막막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원들과 하루 하루 만나가며 의견을 나누다 보니 무언가를 무작정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어우러져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만들기 활동, 요리 활동 등을 다 같이 찾아보고 준비하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최종 완성된 준비물들을 보니 뿌듯함과 아이들과 즐겁게 지낼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고 나서 조금은 열악한 숙소 시설에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런 것도 봉사의 일종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정작 보살펴본 경험이 없던 저는 처음 아이들을 만날 때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금방 갈사람 이라고 생각하여 관심조차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과는 달리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덕분에 힘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나이에 맞게 순수하고 활발했고 그만큼 저도 아이들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즐거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5일 동안 아이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센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신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옆 에서 물리적인 도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동안 힘들기도 했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힘들어서 마냥 즐겁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또 아이들과 지내면서 저 도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더 발전된 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떠나갈 때 아이 들은 저에게 '나 잊으면 안돼요'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말대로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